“일상 공간이 전시장”…화순 ‘로컬힙 프로젝트’ 호평

남산공원·고인돌 시장 등 거점 연결
라이브드로잉·디제잉 퍼포먼스 눈길
로컬 팝업 마켓 ‘와글와글’ 상권 견인
지역 예술가·기획자 협업 시너지 효과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서 올해 추진한 ‘2026 로컬힙 프로젝트’가 4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진은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에 참여한 시민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제공〉

화순에서 개최된 ‘2026 로컬힙 프로젝트’가 4만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단발성 공연 위주였던 기존 축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일상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한 성공적인 롤모델을 제시했다.

29일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열린 이번 프로젝트는 ‘로컬을 취향의 완성으로’라는 주제로 남산공원, 화순시네마, 고인돌 전통시장 등 지역 거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다.

행사 기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단연 ‘전시’ 중심의 기획으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다 흩어지는 무대 공연 대신, 공원 곳곳에 미술 작품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남산공원에서 펼쳐진 메인 야외미술전시 ‘다운사이징(DOWN SIZING)’은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작아졌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입혀 공원 전체를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변모시켰다.

지역 작가 5인(성혜림·손연우·강동호·이두환·정승원)의 작품 60여점이 30여개의 미니 갤러리 박스 안에 전시됐으며, 감각적인 야간 경관 조명까지 더해져 낮과밤 모두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다.

화순시네마 외벽을 활용한 ‘라이브 드로잉’과 ‘디제잉 퍼포먼스’는 통유리 전체를 캔버스로 삼은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강렬한 음악을 통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 외국인 교환학생 70여명이 참여해 지역민들과 국경·세대를 넘어 춤추고 그림을 그리는 진풍경도 연출됐으며,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라이브 드로잉 투게더’는 현장 최고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와 함께 고인돌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 로컬 팝업 마켓 ‘와글와글 모이장’ 역시 지역 수공예 동호회 ‘따수미’ 등 로컬 셀러들이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로 전통시장에 폭발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성과는 재단과 광주·전남 지역 문화 기획자들이 머리를 맞댄 ‘협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지역 자원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탁월한 감각이 시너지를 내 화순만의 고유한 ‘로컬힙’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구종천 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일상 속 작은 가치에 주목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화순이 주변부가 아닌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된 만큼, 앞으로도 참신한 기획자와 예술가를 적극 발굴해 지역에 역동적인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성군, 중동사태 파고 대응 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료 수급·벼 농자재 등 36억 투입
‘수급 상황실’ 상시 가동 밀착 점검

장성군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압박을 받는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선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축산 농가를 위한 ‘조사료 수급 안정 대책’과 벼 재배 농가를 위한 ‘농자재 선제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삼고, 농산업 위축 위기를 돌파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24억9천900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축산농가 조사료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대비 사업 규모를 5% 확대해 17개 경영체와 재배지 1천351ha를 집중 지원한다.

여름철 조사료 재배 농가에는 전략작물직불금을 ha당 550만원으로 기존보다 50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제조·운송비 지원도 9%가량 늘려 탄탄한 지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생산된 조사료는 지역 축산농가에 우선 공급해 외부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벼 농자재 분야에도 11억4천만원을 신속히 투입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인 오는 5월까지 맞춤형 비료 6만500여포, 상토 10만4천여포, 육묘상자처리제 5만여포 등 필수 영농 자재를 벼 재배 농가에 적기 공급한다.

이밖에 단순 물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자재 수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가격과 재고 동향을 밀착 점검하며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사진〉

장성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며 “국제 정세의 요동 속에서도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군, 퇴원 어르신 ‘집중 돌봄서비스’ 시행

식사·청소 등 전액 무료 지원

고흥군은 병원 퇴원 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퇴원환자 단기집중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퇴원 직후 발생하기 쉬운 돌봄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우고 건강 악화와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총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해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관과 긴밀히 연계한 체계적인 돌봄망을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퇴원 직후 거동이 불편해 독립적인 일상 수행이 힘든 어르신으로, 개인별 건강 여건을 고려해 균형 잡힌 식사를 돕는 영양 지원, 청소와 세탁 등 가사 지원,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이동을 돕는 동행 지원 등이 촘촘하게 이뤄진다.

해당 서비스는 회복의 골든타임인 퇴원 초기 1개월간 집중적으로 제공되며, 필요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돼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퇴원 직후는 어르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단기집중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건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곡성군, 영농철 앞두고 라오스 계절근로자 합류

석곡·옥과농협 등 48명 순차 투입

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거 현장에 투입한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일환으로 입국한 라오스 국적 근로자 48명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영농 지원 채비를 마쳤다. 〈사진〉

최근 고유가 여파로 항공편이 축소돼 단기간 대규모 동시 입국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군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석곡농협과 옥과농협을 통해 지역 농가에 배치된다.

남은 미입국 인원 12명도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며, 앞서 곡성농협에 배정된 30명은 이미 현장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입국 당일 마약 검사와 감염 질환 등 건강검진을 꼼꼼히 실시했다.

또한 낯선 타국에서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한국 생활 적응 교육, 기숙사 안내, 문화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외국인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내달 출입국사무소 지문 등록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매듭지을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영농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력”이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한국관광公, 日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성료

죽녹원 방문 등 ‘로컬 특화’ 코스

담양군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일본여행업협회(JATA) 한국워킹그룹 소속 여행사 관계자 20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답사는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을 지방 소도시로 분산하기 위해 기획된 ‘한국의 소도시 30선’ 맞춤형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담양의 랜드마크인 ‘죽녹원’의 수려한 대나무 숲을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5월1일 막을 올리는 ‘제25회 담양 대나무축제’ 현장을 미리 둘러보고, 명인 기순도 전통장 체험과 대통밥·떡갈비 시식 등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오감 만족 로컬 체험을 즐겼다.

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고유의 로컬 문화를 무기로 일본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의 도약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팸투어는 담양만의 독보적인 생태·미식 관광 매력을 일본 시장에 깊이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도록 차별화된 로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봄철 과수화상병 집중방제 나선다

구례군은 29일 “과수화상병 봄철 집중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예찰과 농업인 현장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감염 시 꽃과 잎,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며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특징으로,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병해로 꼽힌다.

이에 군은 지난 2월께 화상병 방제약제 선정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고, 이달 관내 배 재배 33농가 33.3ha를 대상으로 방제를 완료했다. 〈사진〉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상담소를 중심으로 농가 대상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작업도구 소독, 외부 묘목 반입 주의, 의심주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농가 실천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적기 방제와 철저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 자율예찰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장흥군, 향교 문화유산 활용사업 3년 연속 선정

국가유산청 공모…문화 향유 제공

장흥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2026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장흥향교를 현대적 문화 공간으로 재해석한 ‘자~흥, 나는 향교’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이를 지역의 대표 문화 자원으로 육성해 경제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장흥 출신 한국 문학 거장들의 상징성을 살려 선비정신과 문학적 유산이 어우러진 총 3개의 다채로운 체험·교육·공연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표 프로그램 ‘토끼야 향교에 벼슬 가자’는 장흥 출신 이청준 소설가의 판소리 동화를 모티브로 기획됐다.

미래 세대인 유소년들이 예절 교육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비정신을 체득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향교를 거점으로 삼은 이번 활용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다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소통의 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유산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